



Council of Bishops

The United Methodist Church



전 세계 연합감리교인 중에는 전례적(liturgical)이고, 현대적(contemporary)이며, 대중을 따르게 하는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거나, 사회 활동가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사람들을 비롯해 도시와 소도시, 교외 지역과 시골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이로부터, 청소년, 청년, 장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가진 연합감리교인은 새신자로부터 신앙이 깊은 사람들까지 두루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4 개의 대륙에 45 개의 나라가 넘는 곳에 살며, 수많은 문화와 언어 그리고 다양한 인종과 문화 및 관점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연합감리교인은 성령에 의해 하나 되고, 거룩한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이끌어가며, 삶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혁하기 위해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으며, 한 식탁에 모여,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며, 각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라고 명하시고,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고, 같은 곳만 바라보며, 세상을 이해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자신들만의 식탁을 만드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특정 정당과 연합함으로 교회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깨뜨리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전통적인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도, 진보적인 사람들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도, 중도적인 사람들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또한 동성애자들만의 교회나 이성애자들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을 등한시하며, 세상이 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만든 이미지를 가지고 서로 다투며, 그 틀에 갇혀 새로운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대신 우리는 성서에 근거하여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본질에 일치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힘들지만 거룩한 사역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화목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성령의 위대한 능력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증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입니다.

-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 인류를 위해 행하신 역사를 굳건히 믿고,*
- *개인 구원 및 사회적 구원/변혁에 헌신하며,*
- *인종차별과 부족주의(tribalism) 및 식민주의(colonialism)를 없애기 위해 용감하게 나선다.*

모든 연합감리교인과 목회자 그리고 개 교회와 연회는 그들이 자유주의자든 복음주의자든, 진보나 중도 또는 전통주의자이든와 보수주의자이든 그와 상관없이 환영받는 “미래의 연합감리교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살아 있는 핵심은 성경에 계시되고, 전통에 의해 조명되며, 개인적인 경험으로 명확해지고, 이성에 의해 입증된다."라고 한 웨슬리식 신앙 유산을 고수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연대적(connectional) 교회로 나아가고, 교단의 총회가 세계의 본질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며, 우리가 가진 공통된 사명을 상황과 사회에 적절한 형태로 감당하기 위해, 지역을 강화하는 연합감리교회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연합감리교회의 교리적 표준에 깊이 뿌리를 두고, 가능한 많은 연합감리교인의 능력을 활성화하며, 기꺼이 연합감리교회에 남아 함께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사역을 지속하기를 원하는 평신도와 목회자들을 위해, 감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교회의 일부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다른 지체들과 더불어 인류와 피조물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사역 안에서의 가시적인 일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향하시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모든 사람 앞에 상을 베푸시도록(시 23:5), 우리가 배운 기도예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나누며, 모든 지역 교회를 강화하는 데 전념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이것은 신실함입니다.*
- *우리를 서로 하나로 만드소서. 이것은 일치입니다.*
- *온 세상을 향한 사역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소서. 이것은 열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연합감리교회입니다!

연합감리교 총감독회

2021년 11월 3일